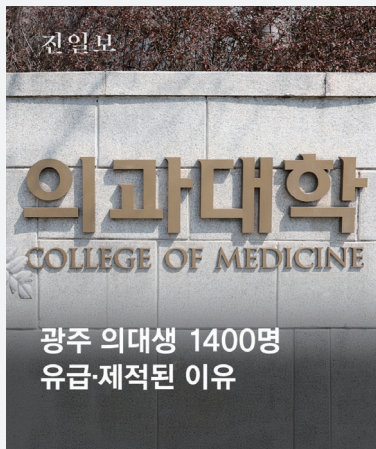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확정



정부가 지난 8일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유급 및 제적 확정을 통보했다.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는 각각 893명 중 697명, 878명 중 668명의 의대생이 휴학 중으로 이로 인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

리플링이 불가피해졌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및 반대와 유급 확정에 대한 집단 저항, 본질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이들은 필수 의료 정책 철회와 의대 교육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유급 및 제적 조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전남대와 조선대도 학칙대로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광주송정역 광장 '5·18 사적지' 지정 추진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광주송정역이 상징적인 장소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 광산구 최초의 오월 사적지가 될 광주송정역에는 다음 달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표지석이 세워질 예정이다. 광주송정역은

1980년 5월, 시민군이 집결하고 계엄군이 광주시로 진입하던 관문이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타이어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며 계엄군에 맞서 저항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광주송정역을 거쳐 금남로 등 도심으로 향하며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퍼뜨렸다. 이번 사적지 지정으로 광주송정역은 5·18 민주화운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모두에게 평화를"



미국 출신 첫 교황 레오 14세 선출

교황청 주교부 장관인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즉위명은 레오 14세로 모든 과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에 이뤄졌다.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인 콘클라베는 지난 7일(현지 시간) 시작돼 133명

의 추기경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콘클라베 4차 투표에서 새 교황을 확정했다. 새 교황의 확정과 함께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는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Habemus Papam)'이라는 선언이 울려 퍼졌다. 이어 레오 14세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을 첫 공식 발언으로 전했다.

최태원, 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위약금 면제, 내 결정 밖"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SKTEL)의 해킹 사고 발생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사회 논의 과정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킹 사고 이후 SKT 이용자 일부는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청구 받은 바 있다. 그러나 SKT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위약금은 내 결정 영역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기고 홍은주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시지사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도덕적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고도 모른 척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소한 부정행위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한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식당 상호가 기억나지 않지만 찜닭 맛집이라 자주 가곤 했다. 그날도 직원들과 함께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카드 결제 후 금액을 바로 확인하지 않던 나는 그날도 어느 때처럼 영수증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퇴근 무렵 영수증 금액에 '0'이 하나 빠져있는 걸 알게 되었다. 연세가 좀 오신 사장님이 5만원을 5000원으로 결제한 것이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라 잠시 들러 결제를 다시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결제할 금액이 5만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이었다면 다시 결제하러 갔을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나 스스로를 합리화했을까?

청빈한 삶의 아이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후 남긴 재산은 고작 100달러(14만원)라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바티칸 내 교황 전용 숙소를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또한, 교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 십자가 대신 20년된 철제 십자가를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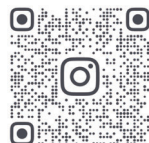
의 청빈한 삶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한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는 경우란 없다.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 중 하나로 국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청렴의 윤리를 기대한다. 공직자가 청렴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청렴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전사적으로 청렴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청렴 추진 체계 강화 및 ESG 경영 등 청렴 정책을 고도화하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등 부패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의 청렴 인식 제고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9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렴누리문화제, 청렴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서 8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북광주시지사는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하게, 청렴은 당연하게'를 실천하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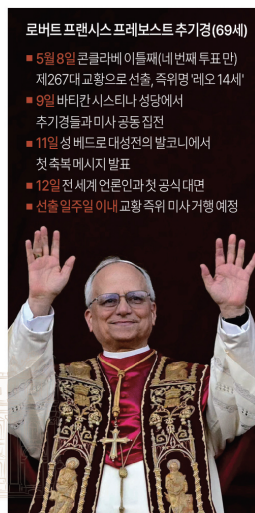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첫미국출신 '레오 14세' 새 교황

연방뉴스 사진:AFP

-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 사용
-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 측근으로 활동, 중도 성향으로 평가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서울 개최시 방문 예정
- 1955년 미국 시카고 출생 및 성장
-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학교 입학, 교황청 종립 안젤리쿰 대학에서 교회법 공부
-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 수품
- 페루 북서부 추루카나스 교구에서 10년간 사목
- 2001년부터 12년간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장으로 활동
- 2014년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 교구(빈민가·농촌지역 포함) 파견
- 2015년 페루 시민권 취득, 페루 대주교로 임명
-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주교 선출 등 인사 총괄)
- 2025년 5월 8일 새 교황으로 선출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